

키아 오라! 뉴질랜드에서 허영근, 박소현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전 세계를 위협적으로 그리고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희들은 잠실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부족하지만 마오리 사역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뉴질랜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최고의 높은 단계인 level 4 경보발령으로 약 5주간 모든 시민이 집에서 자가격리 상태에 있어야 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밖으로 외출도 못 하고, 은행이나 식당, 그리고 큰 슈퍼마켓을 제외한 상점도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교인 중 한 안수집사님은 본인의 부친이 소천을 하였는데도 정부 방침에 의거 장례식에 참석이 허용되지 않아, 오클랜드에서 장례지에 갈 수 없게 되어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예배도 교인 수와는 관계없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준비도 교회가 아닌 개인 집에서 준비해야 하므로 한국과는 다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단계 밀린 level 3 경보발령으로 내려왔지만, level 4와 별다른 차이가 없이 여전히 교회에서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있었던 저희의 마오리 사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매주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별도로, 각 가정에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라는 메시지가 담긴 내용의 편지를 매주 전달하였으며, 우리 교회에 심어놓은 과일나무인 감나무와 키위를 담아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식품과 라면 세트와 함께 이번에 새로 구입한 교회 12인승 van으로 마스크를 쓴채 각 가정을 심방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약 열흘 동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101개의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고 만들어 성도들의 가정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 마오리 성도는 너무 따뜻한 도움과 정성에 감사하다고 연락과 사진들을 보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기쁨이며 즐거움이었습니다. (빌 4:1)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리 마오리 사역은, 성도 수도 많이 늘어나고, 질적으로도 부흥이 되는 시기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마오리의 부흥이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활활 불타오르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 교회인 잠실 중앙교회의 기도와 후원 없이는 부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당회와 선교위원회에도 안부를 부탁드립니다.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늘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0. 5. 14 저녁에 오클랜드에서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를 섬기는 허영근, 박소현 선교사 드림

## 뉴질랜드 원주민들에게 마스크 제공



1594125708687.jpg  
299.4KB



1594125711223.jpg  
552.5KB



1594125713679.jpg  
382.8KB



1594125716433.jpg  
407.1KB



1594125718838.jpg  
227.0KB



1594125721198.jpg  
276.4KB



1594125723599.jpg  
284.8KB



1594125726061.jpg  
128.2KB



1594125728448.jpg  
64.9KB



1594125730852.jpg  
95.2KB



1594125733196.jpg  
84.7KB



1594125735648.jpg  
34.3KB



1594125738035.jpg



1594125740329.jpg



1594125742594.jpg



1594125744874.jpg



1594125751085.jpg



1594125747048.jpg